



보도자료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보도시점 2026.5.7.(목) (사진 15:00 이후) 배포 2026.5.7.(목)

조달청, 키르기스스탄 전자조달 현대화에 힘 보탠다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 개선사업 협의의사록 체결

- 조달청-키르기스스탄 전자조달시스템 개선 ODA사업 관련 협의의사록 체결
- 중앙아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 한국형 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최초 진출

조달청(청장 백승보)이 키르기스스탄 재무부와 함께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을 수출하고 키르기스스탄 조달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조달청은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키르기스스탄 재무부와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 개선사업'(25-28, 102억원 규모)에 대한 협의의사록(R/D, Record of Discussion) 체결식을 진행하였다.

백승보 조달청장과 에른스트 칼디바예프(Ernst Kaldybaev) 키르기스스탄 재무부 차관은 본격적인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에 앞서, 사업의 세부 사항을 확정한 협의의사록에 각각 서명하였다.

해당 사업은 조달청이 자체 수행하는 최초의 공적원조(ODA) 사업으로 '24년 조달청과 키르기스스탄 재무부의 업무협약(MOU) 체결에 따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총 102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지금까지 전 세계 9개국*에 수출되어 기술력을 인정받은 한국형 조달시스템 '나라장터'가 중앙아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 최초로 진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베트남, 코스타리카, 몽골, 튀니지, 카메룬, 요르단, 르완다, 이집트

조달청은 1차년도인 '25년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이후 본격적 시스템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각 국가의 협력 사항을 확정하여 협의의사록에 담았다.

특히 이번 협의의사록에는 프로젝트 담당자로 향후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할 키르기스스탄 국영기업*의 참여를 명시하여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자체 ICT역량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 키르기스스탄 재무부 산하의 IT 공기업(Infosys)으로, 현재 정부 웹사이트 운영 등을 담당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협의의사록(RD) 체결은 키르기스공화국의 디지털 정부 혁신과 공공조달 행정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과 역할을 확립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이 키르기스스탄 조달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양국 간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과 장	김혜경	(042-724-7554)
	국제협력담당관관	담당자	사무관	강소연	(042-724-7200)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